

# 경계작전 전념하는 장병들 건강 책임져

## 본인이 자청해 전방지역 의무대서만 3년째 근무 ... '자랑스런 의무인상' 수상

### '22사단의 슈바이처' 박찬성 대위

육군 제 22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박찬성 대위(34세, 사진)는 사단 내 '슈바이처'로 불릴 정도로 장병들에게 인기가 높다.

박대위가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유는 대부분 군의관이 전방에서 1년 간 근무한 뒤 병원급으로 전속되지만, 박 대위는 2009년 입관한 뒤 본인이 자청해 전방지역 의무근무대에서만 3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환자들의 눈빛이나 행동만 봐도 대부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고, 진료를 할 때 장병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진료결과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위는 사단에서 실시하는 환자진료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다.

박대위는 매주 GP·GOP·해안소초를 순회 진료하며 최전방에서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의료봉사에도 매번 참가해 대군신뢰도 향상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입관 3년차인 박대위가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2010년 9월 온열손상으로 41℃가 넘는 심한 고열과 반흔수의 의식불명상태인 환자를 살려낸 일이다.

당시 당시 군의관이었던 그는 불안정한 호흡과 맥박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액을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강릉병원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해 귀중한 목숨을 살렸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에는 택시 교통사고로 생명이 촉각에 놓인 병사를 헬기를 통해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지속적인 조치를 통해 환자를 살리기도 했다.

60%라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온열손상 환자를 살려낸 박 대위의 뛰어난 응급처치능력은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박대위는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2010년 단체부문 우수상을 차지한데 이어, 2011년에는 군의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대위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로들이 어우러져 지난 16일 의무사령부에서 매년 육·해·공군에 근무하는 군의관 대상으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의무인상'을



육군 제 22보병사단 내과 군의관 박찬성 대위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수상했다.

박대위는 "모든 군의관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데 나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쑥스럽다"며 "우리 사단 장병들이 건

강 걱정 없이 오로지 경계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역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마등령 실종자 3일만에 구조

## 영하 20도에서 6일간 생존 '기적의 사나이'

지난해 12월 23일 설악산 마등령 구간에서 산행 중 실종됐던 박모씨(44세, 경상남도 진주시)가 속초소방서 등 구조대의 노력에 힘입어 3일이 경과한 26일 오후 1시 극적으로 생존했다.

박씨는 특히 실종되기 3일전인 20일 오전부터 등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는 영하 20도 안팎인 설악산에서 6일간이나 생활하다 구조된 것이어서 강한 정신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박씨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신고를 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부인은 이날 오후 6시께 박씨와 휴대폰 연결이 됐으며, 박씨는 "해지기 전에 텐트를 치고, 힘들어서 계곡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다음 날인 21일 오후 6시에 박씨는 "오늘도 힘들어서 많이 못가고 내일은 더 올라가지 않고 백담사 방향으로 하산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21일 밤에는 박씨가 어머니와 통화에서 "대청봉 밑에서 텐트를 치고 자겠다"



속초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설악산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 3일, 산행을 시작한지 6일만에 발견한 박씨를 소방헬기에 싣고 있다.

는 말을 남겼다.

이후 연락이 두절된 23일 오후 6시36분부터 본격적인 수색작업에 들어간 속초소방서와 설악산관리공단, 설악산악구조대 등 50여명은 26일까지 지속적인 수색을 펼쳤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그러던 중 구조대는 마침내 26일 오후 1시 영시암 근처 눈밭에서 텐트를 치고 누워 있던 박

씨를 발견했다. 박씨는 발견 당시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 및 탈진상태로 위험한 상태였으나 소방헬기를 동원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속초소방서 구조대 관계자는 "박씨는 영하 20~30도가 넘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생존한 '기적의 사나이'라며 "박씨의 강인한 정신력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울곡전우회 전방초소 위문

### 송년의밤 행사때 성금마련, 커피믹스 전달

육군 제22사단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부사관들의 모임인 울곡전우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송년의밤 행사를 열고,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해 12월24일 전방에서 고생하는 보병 및 포병 부대에 전달했다.

울곡전우회는 추위 속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병사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기 위해 커피믹스를 구입해 전달했으며, 특히 송동희 사무국장은 전방 헌병초소에 금일봉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한편 울곡전우회는 지난 2008년 12월 고성과 속초지역에서 생활하는 22사단 부사관 출신들이 안보단체로 창립했으며, 22사단과 유대를 강화하고 현역 부사관 후배들과 단결을 도모하며 부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백옥식 시민기자

